

기억의 씨실 · 상상의 날실로 엮는 누에 홀 기록 전시

완주문화재단, 구 잠종장 건물 활용 공동창조공간으로서 의미 재창조

완주문화재단은 완주군 청사 옆 구 잠종장 건물에 공동창조공간 누에를 오픈하고 내달 13일까지 이카이브(기록보관) 전시회를 열고 있다

잠종장에 남겨진 물건들을 발굴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 이번 전시는 그 물건들이 담고 있는 사연을 추적하고 정리하여 단순한 전시사료의 진열이 아닌 해석의 작업으로 잠업과 여성의 키워드로 접근하여 이 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공동창조공간 누에의 장소성이 지닌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총 3부로 구성된 전시회는 잠업시험장

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버려진 공간에서 과거 융성했던 잠업의 영광을 떠올리고 사라져 간 것들의 흔적을 찾아내어 기억의 씨실과 상상의 날실로 엮어내고 있다

먼저 1부인 '기억의 연대기'에서는 우리나라 잠업 역사를 전반적으로 꼼꼼히 살핀다

2부 '기억의 물건들'은 버려진 물건들에 대한 관객 체험을 통해 기억의 빈틈은 상상의 영역으로 채워질 수 밖에 없음을 전하고 있다

3부인 '여성의 일로 돌아보는 기억'

에서는 잠업은 여성의 일로 조선시대 문헌자료에 따른 양비에서 시작하여 산업화 시대, 공순이라 불렀던 여공에 이르기까지 잠모의 역사속에서 우리 여성의 강인한 숨결을 만날 수 있게 해준다

전시회를 기획한 '기록보관'의 전미정 대표는 "옛 자료를 찾고 기록하는 일이 사라진 것을 되돌려 주지는 못하지만 그 흔적 위에 조금씩 다른 기억들이 덧입혀져 여러 층의 서사를 간직하게 한다. 이것이 우리가 옛일과 옛사람의 사연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이다"고 말했다

/정혜은 기자



완주 공동창조공간 '누에' 포스터

호남오페라단, 30주년 기념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팔리아치' 오페라 공연

(사)호남오페라단은 창단 30주년을 기념해 '피에트로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와 레온카발로의 <팔리아치>'를 무대에 올린다

이 두 작품은 과거의 인물이나 전설·신화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평범한 서민들의 이야기를 담아냄으로써 '사실주의' 오페라의 효시로 평가되고 있으며, 단막오페라로 한 무대에서 동시공연되는 게 불문율로 자리하고 있다



두 극은 어긋난 사랑에서 비롯된 시기와 질투, 집착과 의심, 배신과 복수로 점철된 비극적인 내용으로 전개되며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의 극중 합창곡인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팔리아치의 희상을 입어라' 아리아 등과 같은 명곡이 함께 한다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마을의 부활절을 배경으로 한다. 주인공 부리두는 자신이 군대간 사이 연인인 롤라가 다른 사람과 만나 결혼했지만 옛 사랑을 잊지 못하고 롤라의 유혹에 빠져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이야기다

팔리아치는 유랑극단의 광대인 주인공 카니오가 비탄난 아내에 대한 분노로 이성을 잃고 현실과 연기를 혼동해 아내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치정삼인극으로 이는 1800년대 후반 이탈리아 칼라브리아 지방의 몬탈토에서 일어난 사건을 소재로 한다

이번 작품의 연출은 김어진(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과 마르코 푸치(카탈레리아) 각각 맡았으며, 공연은 전주시립교향악단과 스킨라 오페라 합창단이 협연한다

조장남 예술총감독은 "호남오페라단은 창단 30주년을 맞아 일반관객들이 이해하고 즐기기에 무리가 없는 사실주의 오페라를 선보이고자 했다"며 "이를 통해 오페라 저변 확대 및 정서 순환·고양에도 일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연은 29~30일 오후 5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예매는 인터파크 홈페이지, 티켓 가격은 VIP석 10만원·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2만원, B석 1만원. 문의 063)288-6807

/정혜은 기자



미당 서정주 시인을 기리고 그의 시문학 세계를 잇기 위한 '2016 미당문학제'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고창군 부안면 '미당시문학관' 일대에서 열린다.

“서정주 생각하며 질마재 문학여행 함께해요”

28일부터 30일까지 고창군 부안면 미당시문학관에서

미당 서정주 시인을 기리고 그의 시문학 세계를 잇기 위한 '2016 미당문학제'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고창군 부안면 미당시문학관 일대에서 열린다

'국화향 그윽한 질마재 문화여행'이란 주제로 꾸며지는 이번 문학제는 서정주 시인의 고향이자 작품 세계의 바탕을 이루는 질마재를 배경으로 펼쳐진다

문학제 첫날인 28일에는 사남송가협회 회원들이 미당 시를 읽어주고 방문객들이 시를 낭송해 보는 시간으로 꾸며지며 문효치 시인과 장석남 시인의 미당 문학특강 시간도 마련된다

29일에는 제2회 전국청소년 백일장 미당 문화회 신인상 시상과 미당 사남송 퍼포먼스 '제18회 미당문학상' 수상자의 문학강좌인 시인의 밤, 음악극 '질마재 신화' 공연을 비롯해 퐁기타, 사물놀이 등 감성을 채울 공연과 명사낭송의 시간으로 꾸며진다

30일에는 미당 시 읽어주고 낭송하기와 7080 그룹시문드와 여성전통타악그룹 '도도' 공연을 비롯해 주민통합한미당 행사가 마련돼 축제의 풍성함을 더한다

축제 기간 동안 상설행사로 미당시문학관에서는 미당시문학 기획전시와 시화전시, 포토존이 마련되며 미당생가에서도 기획전시와 시화전시와 포토존을 비롯해 축제장 일원에서는 먹거리장터와 풍물시장, 전통놀이마당이 마련된다

특히 미당문학제는 길여가는 가을날에 열리는 '감성축제'로 자리 잡으며 미당 묘소 주변의 노랑게 물든 11ha의 국화밭과 인근 선운산도립공원의 단풍, 그리고 오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고창 고인돌공원 일원에서 100만 송이의 국화를 감상하고 선사체험을 할 수 있는 '선사시대로 가는 고창 국화축제'와 함께 가을을 만끽할 추억을 선사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군산시, 시간여행속으로 떠나는 맛길! 멋길! 행사

군산시는 가을 여행주간에 군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시간여행의 추억을 느낄 수 있도록 '군산 시간여행 속으로 떠나는 맛길! 멋길!' 행사를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한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하는 가을 여행주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대표 프로그램으로, 군산 골목골목에 숨어있는 추억의 보물들을 하나로 엮어 방문객들에게 삶의 여유를 되찾고 군산을 재발견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기획했다

행사 기간 동안 초원사지관 일원에서 1930년 대표 소설인 탁류를 퀴즈로 한

군고구마 체험, 희망 떡매치기, 근대문화도시 군산(시간여행 P(브랜드 네이밍)인 헬로모던(Hello Modern)과 군산제과 모형 등의 떡살을 이용한 절편 만들기, 추억의 달고나 체험, 막걸리 만들기 체험 등 다량하고 풍성한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또한 근대문화를 주제로 한 거리 상행극 아코디언과 기타연주, 노래·미술공연, 저글링, 현악중주, 모던음악 등 길여가는 가을날 군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군산=문정곤기자

전주시 홍보대사 라스트포원, 우즈베키스탄에 전주 알리

전주시 홍보대사 라스트포원이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과 함께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문화를 알리는 '2016 우즈베키스탄 한국 축제(2016 Korea Festival in Uzbekistan)'에 참여해 한국과 전주를 알리는 활동을 펼쳤다

공공외교 전문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과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이 주관한 이번 축제는 공공외교 대상국 또는 지역에 한국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행사로 우즈베키스탄에 한국문화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일환으로 펼쳐졌다

이번 '2016 우즈베키스탄 한국 축제(2016 Korea Festival in Uzbekistan)'에서는 비보이 그룹 라스트포원과 숙명가이급연주단이 초대돼 약 일주일간 수도 타슈켄트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역사 도시 사마르칸트, 부하라 등 3개 도시에서 총 7차례 공연을 진행했다

이번 축제에서 라스트포원과 숙명가이급연주단은 가이급과 비보이의 창의적인 접목으로 많은 주목을 받은 <개는반주곡 All For One>을 비롯해, 이리랑 가이급조 등 전통음악과 우즈베키스탄 현지인들이 널

리 사랑하는 곡인 <하얀 롤립 Oq Loklar>, 비보이 프리스타일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며 한국문화를 알렸다

이밖에도 라스트포원은 전주시 홍보대사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외 2개 도시에서 전주를 알리며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줬고,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전주를 알리는 홍보영상을 촬영해 SNS(https://youtu.be/2UHj44at2t8) 등에 홍보했다

/김영재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객원단원 채용

국립민속국악원은 2016 국악연주단(창극단·가야단·무용단) 객원단원을 공개 채용한다

모집은 판소리·타악·풍물연희·무용 등 4개 부문으로, 인원은 각 부문별 1명씩 총 4명이다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인 자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거나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자이다

응시원서는 오는 26일~28일 제출하면 된다

11월 2일~3일 중 실기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채용할 예정이다

문의는 063)620-2306

/정혜은 기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전북여성백일장 개최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여성의 인문·문화예술 활성화 시키고자 제4회 전북여성백일장을 오는 31일에 개최한다

이번 백일장 행사는 도내 여성들에게 창작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잠재된 문학성을 계발하고 여성문인을 발굴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참가 대상은 글쓰기를 좋아하는 도내 성인 여성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결혼을 통해 도내에 정착한 이주 여성도 참여 가능하다

28일 오후 6시까지 인터넷 및 전화로 사전신청하면 된다

행사 당일인 31일 오후 1시30분까지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문과 산문 2개 부문으로 진행되는 이번 백일장의 주제는 현장에서 공지된다

대회 수상자에게는 장원 각 100만원의 상금과 전북여성백일장 수상자들의 모임인 글벗 동인 활동의 자격이 주어진다

센터는 행사 당일 박형준 시인의 글쓰기 특강을 마련하여 글쓰기에 관심 있는 도내 여성들의 갈증을 해소하는 자리도 갖는다

신수미 센터장은 "전북여성백일장이 지역 여성의 성원과 참여 속에 도내 여성의 가을 인문 행사로 자리 잡았다"면서 "전북지역 여성문화 활동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및 접수는 063)254-3813~4 또는 홈페이지www.jwcc.re.kr

/정혜은 기자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lab.com/

<2016년 10월 25일>

▷쥐띠
46년생: 금전운이 좋지 못하니 손재수가 발생한다.
60년생: 이동, 변동수가 있으니 활발하게 움직이면 좋은 운.
72년생: 여성은 남성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이 발생
84년생: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운이다.

▷소띠
49년생: 동기근로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하니 마음을 다스리라.
61년생: 타인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운이다.
73년생: 일적인 능력이 오르지 어려워 일도 잘 해낼 수 있는 운.
85년생: 금전운은 좋으나 건강에 주의가 필요한 운이니 참고하라.

▷호랑이띠
50년생: 문서운이 들어왔으니 문서를 주고 받는 일에 좋은 운이다.
62년생: 밖의 활동보다는 안에서 소극적으로 움직여라.
74년생: 사소한 실수가 큰 잘못으로 이어지니 정신을 집중하라.
86년생: 구설수 시비가 발생할 수 있는 운이니 언행에 주의하라.

▷토끼띠
51년생: 먼저 베풀면 좋은 결실이 따르니 욕심을 버려라.
63년생: 건강에 주의가 필요한 운이니 섭생에 주의.
75년생: 이성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일이 풀린다.
87년생: 상대편과 의견이 맞지 않는 운이니 화합을 도모.

▷용띠
52년생: 나를 위한 상황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상황이 되게 만들라.
64년생: 처음에는 불화하나 나중에는 화합한다.
76년생: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운이다.
88년생: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도와주니 좋은 결과.

▷뱀띠
53년생: 상대편이 나에게 걸과 속이 다르니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65년생: 때를 기다리며 내실을 다져 나아가야 하는 시기.
77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진지함과 성실함이 더해져야 한다.
89년생: 가볍게 던진 말로 인해 구설이 발생하니 언행에 주의.

▷말띠
54년생: 출타할 일이 있으면 각별히 주의해야 할 운이다.
66년생: 의도하지 않게 타인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운.
78년생: 시고수와 절망수가 따르니 운전은 삼가라.
90년생: 손재수가 따르니 지출을 삼가고 미루어라.

▷양띠
55년생: 정신적으로 위지 않는 운이니 세심한 일 주의.
67년생: 이성으로 인해 오해 받을 만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79년생: 약간의 구설이 따르는 운이니 자연스럽게 오해가 풀린다.
91년생: 금전운이 약하고 출타하면 생각하지 않았던 지출발생.

▷원숭이띠
55년생: 문서로 인하여 구설이 발생할 수 있는 운.
69년생: 외로운 마음이 드는 시기다. 마음을 가다듬어라.
80년생: 먼저 베풀면 베푼 것보다 큰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92년생: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라.

▷닭띠
57년생: 금전적으로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운이다.
69년생: 하고자 하는 일을 밖으로 크게 추진하지 말라.
81년생: 기혼자에게는 부부불화, 미혼자에게는 이성과 만남.
93년생: 추위로 인한 질병, 특히 기관지에 유의해야 할 운이다.

▷개띠
48년생: 일찍 움직이면 얻을 수 있는 운이다.
60년생: 들어온 만큼 나가는 운이니 욕심은 금물이다.
72년생: 큰 성과를 욕심내는 사람은 불리하니 주의하라.
84년생: 운전은 가끔씩 삼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다칠 수 있다.

▷돼지띠
47년생: 작은 일에 대해서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운.
59년생: 지나간 일에 대한 구설수가 발생하는 운.
71년생: 이성과의 불화가 예상된다. 순간적인 충동을 억제하라.
83년생: 위 사람의 덕을 받을 수 있는 운이니 겸손한 자세를 유지.